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더욱 맹렬해진 신흥시장 채권에 대한 관심
 - ◇ (초점)-FOMC 결과에 담당한 채권딜러들, '캐리 참호전 퍼며 딜링장 준비'
 - ◇ (초점)-원화 강세 주춤, 스왑포인트 급락.. 일시적 조정일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포르투갈 총리와의 회담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로이터/곤잘로 후엔테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1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099.7	-0.9%	5.2%	-3.5%	유로	1,2255	1.2%	9.3%	-2.3%
100엔 대비	1,063.9	-1.4%	-0.1%	-4.4%	엔	103.31	0.7%	5.1%	0.9%
유로 대비	1,347.3	-1.9%	-4.0%	-1.3%	위안	6,5350	0.2%	6.6%	-1.3%
위안 대비	168.09	-0.8%	-1.4%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30,179.05	0.4%	5.7%	22.3%
코스피	2,772.18	0.1%	26.1%	7.7%	나스닥	12,755.64	3.1%	42.2%	35.2%
코스닥	947.24	2.0%	41.4%	-0.9%	S&P500	3,709.41	1.3%	14.8%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648.76	0.7%	17.4%	15.8%
국고채 3Y	0.963%	-1.7bp	-39.7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345%	3.8bp	-13.5bp	-40.4bp	미국채 2Y	0.123%	0.2bp	-143.8bp	-93.7bp
국고채10Y	1.708%	4.7bp	2.5bp	-26.5bp	미국채 10Y	0.945%	4.8bp	-96.5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9.10	5.4%	-19.6%	34.5%	한국 5Y	21.0bp	-0.1bp	-0.1bp	-17.0bp
금(현물)	1,880.66	2.3%	24.0%	18.3%	일본 5Y	14.0bp	0.0bp	-3.7bp	-4.0bp
TR상품지수	2,639.64	-1.3%	6.2%	4.8%	중국 5Y	27.3bp	-2.1bp	-3.3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2월 21일(월)>

- 관세청, 12월 1-2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코로나 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12:00)
- 한국거래소, 손병두 신임 이사장 취임

<22일(화)>

- 한은, 11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23일(수)>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10:00), 1차관 브리핑(13:15)
-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14:30)
- 기재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마련(14:00)
- KDI,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행정안전부 용역 결과)'(12:00)
- 통계청, 10월 인구동향·11월 국내인구이동 (12:00)

<24일(목)>

- 기재부, 2021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17:00)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11:00)

<25일(금)>

- 공휴일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2월 21일(월)>

- 중국, 12월 대출우대금리(10:30)
- 미국, 11월 전미활동지수 (22:30)
-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22일(화)>

- 미국, 3분기 기업이익 수정치·GDP 최종 (22:30)
- 미국, 11월 기존주택 판매 (자정)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2월 비제조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22:30)

<23일(수)>

- 일본, BOJ 10월 28-29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8:50)
- 미국, 11월 건축허가 수정치 (22:00)
- 미국, 11월 개인소득·근원 PCE 물가지수·내구재 주문 (22: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0월 주택가격 (23:00)
- 미국,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 (자정)
- 미국, 11월 신규주택판매 (자정)

<2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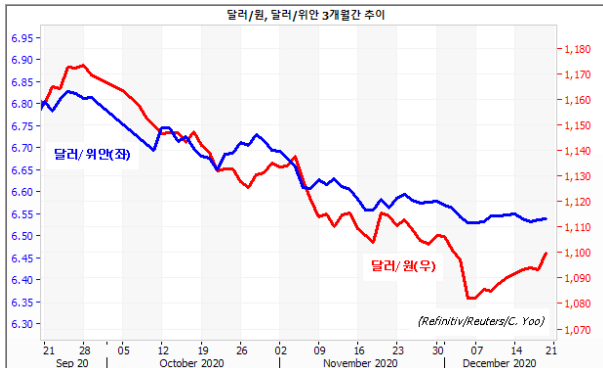
- 일본,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일본 경단련 연설 (13:40)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홍콩, 호주, 싱가포르 등 조기폐장

<25일(금)>

- 일본, 12월 도쿄 CPI (08:30)
- 일본, 11월 실업률 (08:30)
- 일본, 11월 소매판매 (08:50)
- 미국, 유로존, 영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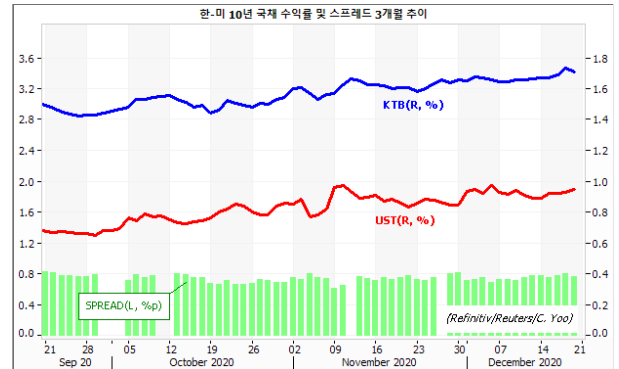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수급 여건 따라 주로 등락하면서 잦은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085-1110 원이다.
-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달러/원 환율은 반등 탄력을 키우고 있다. 원화 강세 전망이 크게 조정되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되돌림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 이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행보와 결을 같이한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7일 1080 원 부근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한 이후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5 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환율 또한 역내 수급 여건을 따르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국내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1천명 대로 폭증하는 등 코로나 19 사태 악화에 대한 위험 인식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와 원화에 대한 조정 인식이 자극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19 전개 양상도 변수다.
- 미국 추가 부양책 타결 여부와 이에 따른 달러 약세 확산 여부가 주목되긴 하지만 연말로 접어들면서 원화가 약 달러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확연히 떨어진 만큼 원화는 대외 모멘텀보다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매 동향과 더불어 역내 수급에 주로 연동돼 움직일 전망이다.
-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국내외 지표로는 21일에 발표될 이달 20일 기준 한국 수출입 잠정치와 23일 발표될 미국 개인소비지출 등이 있다. 24일에는 주요국 증시가 성탄절 이브로 조기 폐장하고, 25일에는 휴장한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 재정 부양책의 의회 통과 여부와 규모,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외 주가 반응 등을 살피며 움직이겠지만, 연말을 맞아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의회의 재정 부양책은 이미 시장에 대체로 반영돼 실제 통과 시 주가 반응 등 여파에 따른 일시적 채권 시장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어찌 됐든,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재유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속속 진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된 분위기가 위험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 19 이후의 경기 회복 기대가 진행 중인 재유행이라는 현실을 압도하는 가운데, 재유행에 따른 대책이 나오더라도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리라는 판단도 채권에는 부담이다.
-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재유행이 겨울로 들어서면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단행될 경우 실물경제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새해 들어서 추가경정예산 예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
- 백신 기대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국내 국고채 수익률은 주간 기준으로 3년물 수익률은 1.7bp 하락한 반면, 5년물과 10년물 수익률은 각각 상승했다.
- 이번 주 예정된 경제지표와 행사로는 국내에서는 12월 1-20일 기간 수출입 동향(21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22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4일), 1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 등이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11월 근원 PCE 물가지수(23일), 미국 12월 심리 지표 등이 있다.

(그래프/분석)-더욱 맹렬해진 신흥시장 채권에 대한 관심

런던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확산되면서 신흥시장 채권을 향한 관심이 더 강해지고 있다.

백신 공급,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대체로 마이너스 금리인 선진국 채권은 신흥시장 고수익 채권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최저 수준에 속하는 라오스도 지난 주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3명의 대통령을 거친 페루도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했고 중국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를 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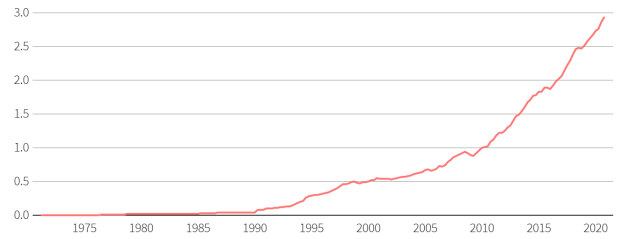
스위스 소재 펀드인 망가트의 리카르도 그라시는 "이것은 분명 미친 짓이다"라며 "많은 투자자들이 중앙은행들이 밀어붙은 막대한 유동성으로부터 아주 작은 수익이라도 얻으려고 하고 있으며, 또 계속 밀어붙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 사태로 개발도상국들의 타격이 계속 심해지면서 발생했다.

모간스탠리는 신흥시장 내 예산 갭이 올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두 자리 수만큼 늘어난 가운데 2021년에는 평균적으로 GDP의 5.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Emerging market debt set to hit \$3 trillion

Emerging markets bonds in \$ trillions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s
Source: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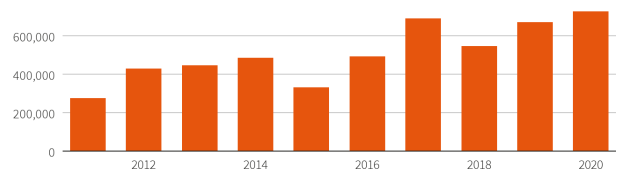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6 개국이 디폴트 선언을 했으며, 더 넓은 범위의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는 20 여개의 다른 종류의 디폴트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신흥시장 국채 발행이 7,260 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레피니티브 자료에 나타난 가운데, 내년에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좀 더 눈길을 끄는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M debt issuance surged to record levels in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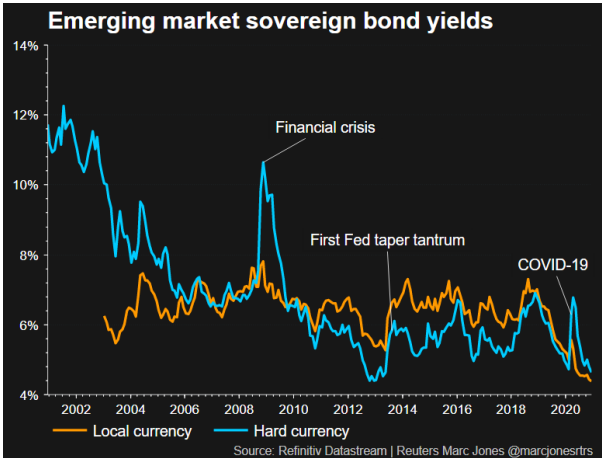
\$ bln



Tom Arnold
Source: Refinitiv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추세가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정부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먼저 지급 타임라인이 더 길 것이고, 둘째로 달러나 다른 주요 외국 통화화 아닌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이 될 것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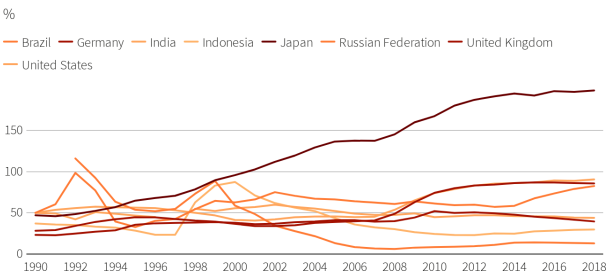
◆ 롱포지션을 취하다

페루처럼 만기가 100년인 채권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비록 올해 디폴트로 끝나긴 했지만, 2017년 아르헨티나처럼 멕시코가 한번 발행한 적이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오스트리아가 6월 또 한번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가치가 두 배 이상 올랐다.

투자자들이 장기물 채권을 선호한다는 것은 부채 수준에 안도감을 느낀다는 점을 반영한다. 픽택에 셋매니지먼트는 내년 신흥시장의 부채는 GDP의 66%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선진국의 약 절반 수준이다.

Central government debt to GDP of select EM vs DM



Tom Arnold
Source: IMF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 추세는 자국 통화 표시 채권에 대한 선호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 자국통화 표시 채권은 30조달러 규모의 신흥국 채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음에도 최근 몇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 관심의 신호는 지난 달 우즈베키스탄이 처음으로 우즈벡 송 표시 트란체를 발행하면서 나타났다.

피셋의 신흥시장 자국통화 국채 헤드인 알퍼 고서는 "자국통화 표시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가 사상 최저 수준인 가운데,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력적인 실질 수익률을 두고 국내 투자자들과 경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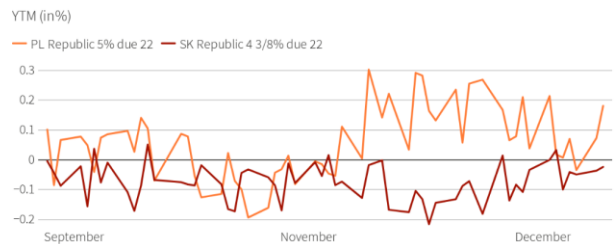
달러 약세 지속 전망도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또한 유로 표시 채권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은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지속 기대감에 유로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레피티브 자료에 따르면 신흥국들이 발행한 유로 표시 채권은 사상 최고인 1,153억달러에 달했다. JP모건의 신흥시장 유로채권 지수의 약 25%는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은행들은 한국과 중국의 마이너스 금리 유로 본드 발행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 거의 확신한다고 밝혔다. AA-등급의 이스라엘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유럽에서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그랬던 것처럼 거의 제로부근의 금리를 가지고 있다.

Slovakia and Poland dollar bonds have flirted with negative yields



Tom Arnold
Source: JPMorgan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흥국 기업들이 다시 정상화 및 확장을 꾀함에 따라 새로운 경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JP 모간은 신흥국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준인 5,22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에 발행된 국채 규모가 소폭 감소하더라도 그 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JP 모간의 스테판 웨일러 CEEMEA DCM 헤드는 "경제 전망에 더 확실해 지면서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더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며 "자본 시장 활동을 촉진하는 기업 인수합병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점)-FOMC 결과에 담담한 채권딜러들, '캐리 참호전' 퍼머 딜링장 준비'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고용과 물가 목표 달성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적어도 현 수준의 자산매입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내 채권 딜러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고 듀레이션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기존의 스탠스를 반복한 이같은 결과가 채권 셀 오프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채권 딜러들의 입장은 한결같다. 연준이 내년 경제 성장을, 물가 상승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코로나 19 백신 보급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딜러는 없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 집행으로 채권 수급이 압박을 받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같은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최대치까지 반영해 왔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결국 현재의 대내외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낙관적 기대에 편향된 심리인 만큼 이제는 경제 지표가 기대대로 움직일 것인지를 볼 시기라는 것이다.

시중은행 채권 딜러는 "현시점에선 실제 경기가 반등해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반영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다만 연준은 테이퍼링을 해야 할 정도로 강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고 시장도 이를 반영해 완만하게 금리가 상승하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가 상승세로 고정될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결국 최악의 전염병 국면에선 헤어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고 그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채권시장은 금리 저점을 높이며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산운용사 채권 매니저는 "현재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려면 유동성을 푸는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야 한다"며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에 중대한 진전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솔직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채권 딜러는 당장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다만 현재의 대유행 국면이 지나가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상반기 한 차례 큰 변동성 장세가 닥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당장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 10년물 금리가 1.7%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저가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결국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유력한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받아 든 상태에서 당분간 캐리를 노리는 참호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보통 이 정도 금리대면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데 그렇지 않은 건 좋은 타이밍에 포지셔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기가 바닥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면 포지션을 잡겠지만 내년에 큰 변동성 장세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내내 딜링 장이었다가 하반기에는 캐리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캐리를 확보하고 싶은 곳

들은 듀레이션을 늘리기보다는 크레딧 단기물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내년에 한 번 더 금리가 튀어 오를 경우 크레딧에서 장기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딜링 장이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은 지점 트레이딩 헤드는 "현재의 코로나 19 대확산 국면이 지나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시나리오를 대체할 다른 가능성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어떤 재료가 나와도 심리에 막히는 현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반등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역설을 감안할 때 지금은 몸을 낮추고 앞으로 다가올 변동성 국면에 대비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초점)-원화 강세 주춤, 스왑포인트 급락..일시적 조정일까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연말이 다가오면서 달러/원 환율은 틈틈이 반등 탄력을 타진하고, 단기 외화자금 시장은 급랭하는 등 외환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환율은 1080 원 하향 이탈을 시도했고 일각에서는 1050 원대 도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환율은 1080 원 부근에서 하단을 다지더니 16 일까지 5 거래일 연속 상승해 1090 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FX 스왑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 구간에 걸쳐 플러스 영역에서 호가되던 스왑 포인트가 17 일 오후 초반 모든 기간물이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다. 무엇보다 1 개월물이 -70 전까지 속락해 지난 6 월 이후 최저치로 미끄러지는 등 단기물 중심으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그간 외환시장 흐름을 이끌었던 위험선호 심리,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위안화 강세 등 굵직한 모멘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시장 흐름이 급변한 데는 연말 수급 영향력 확대 속 수급 무게중심이 다소 변동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외인 주식 차익 실현에 원화 강세 주춤

일방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환율의 최근 반등은 수급 영향으로 주로 설명된다.

1080 원대 초반에서 일부 역외들의 숏 커버가 있었고 외인 증시 자금 이탈에 따른 달러 수요가 최근 환율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 거래일 연속 환율이 오르던 기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인 순매도 규모는 2.2 조원에 이른다. 오늘도 외인들은 약 4 천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외인 자금 유입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1080 원대에서 여러 형태의 역외 매수세가 들어왔다"면서 "연말 국내 증시에서 외인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커스터디 관련 수요들이 꾸준히 달러/원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장 참가자는 "외국인 증권 자금과 관련해 꾸준한 매수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율 반등 때마다 네고는 꾸준히 나오지만 환율 단기 바닥이 확인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결제 수요도 최근 적극적으로 유입 중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1 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검토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경계감도 반영 중이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속에서 달러/원 하락 추세에 대한 전망은 크게 변함이 없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외인들이 조정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 대선 전후 형성된 달러 약세와 증시 강세 결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기적인 달러/원 하락 전망은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연말 수급에 속절없이 밀리는 스왑 포인트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김없이 달러/원 스왑 포인트가 속락 중이다. 특히 단기물 위주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 내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연말 수급 불균형에 따른 반응으로 해석하고, 이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C 은행 스왑 딜러는 "픽싱 관련 물량이 급하게 소화되면서 단기물이 급락하자 시장 심리가 더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관련 에셋 물량은 계속 나오면서 스왑 포인트는 계속 눌리고 있다"면서 "현재

로선 비드 주체를 딱히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외 달러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만큼 일시적 수급 마찰요인이 해소되면 거래 측면에서 비드 유인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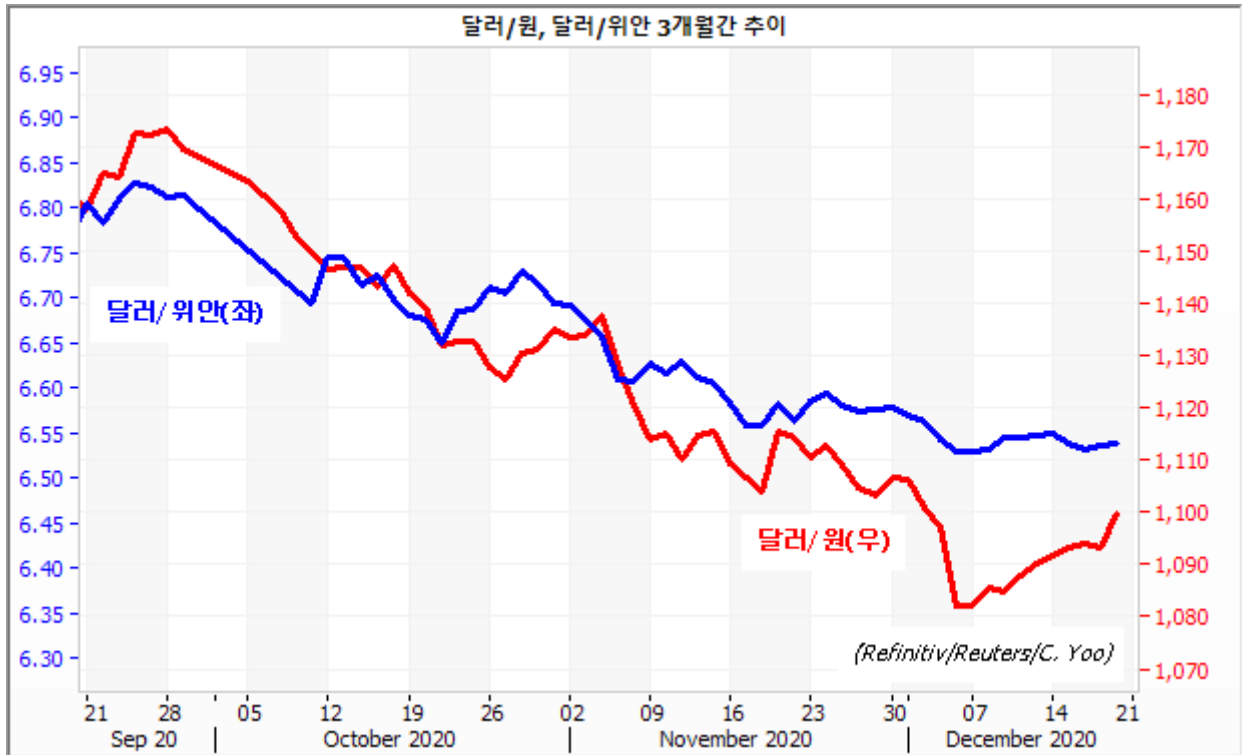
D 은행 스왑 딜러는 "12월 캐시 관리와도 영향이 있을 테지만 그간 시장이 과했던 부분도 있었다"면서 "가격 측면에서 캐리 룬이 없었던 상황에서 스왑 포인트가 조금 더 빠져도 크게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위의 C 은행 딜러는 "은행들의 12월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바닥 인식이 생기면 연말에 스왑 포인트가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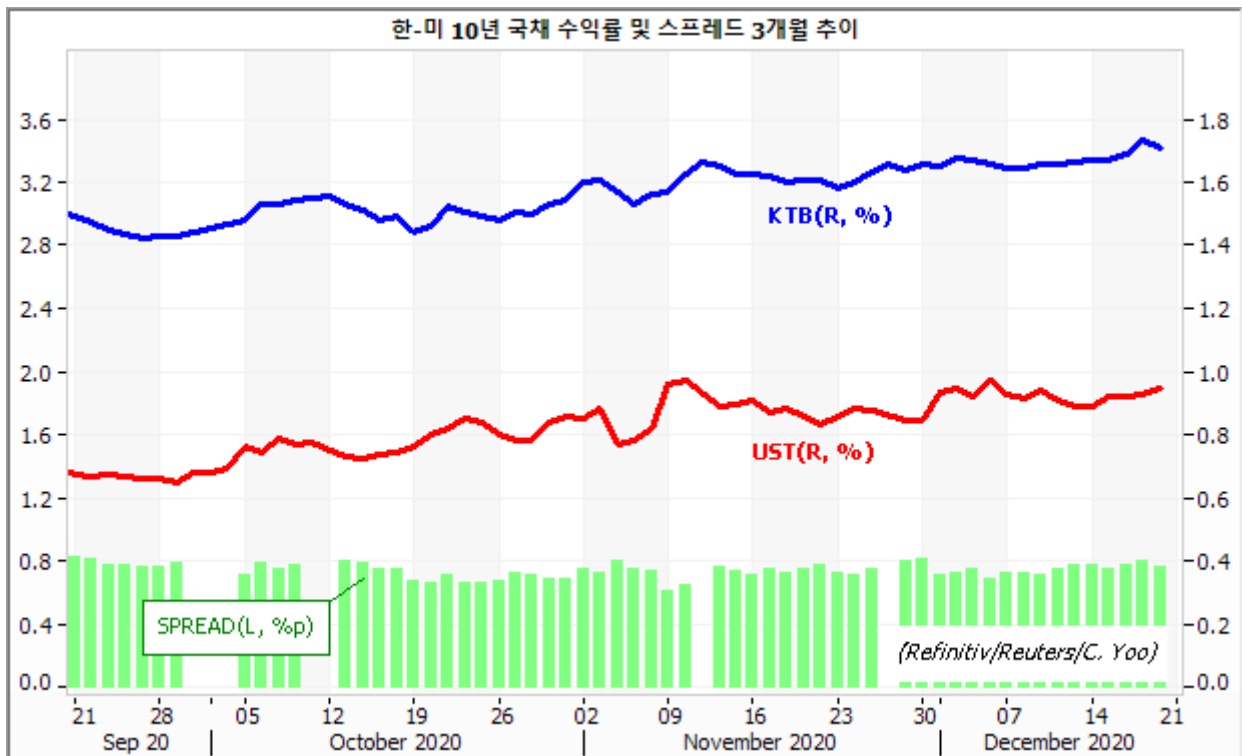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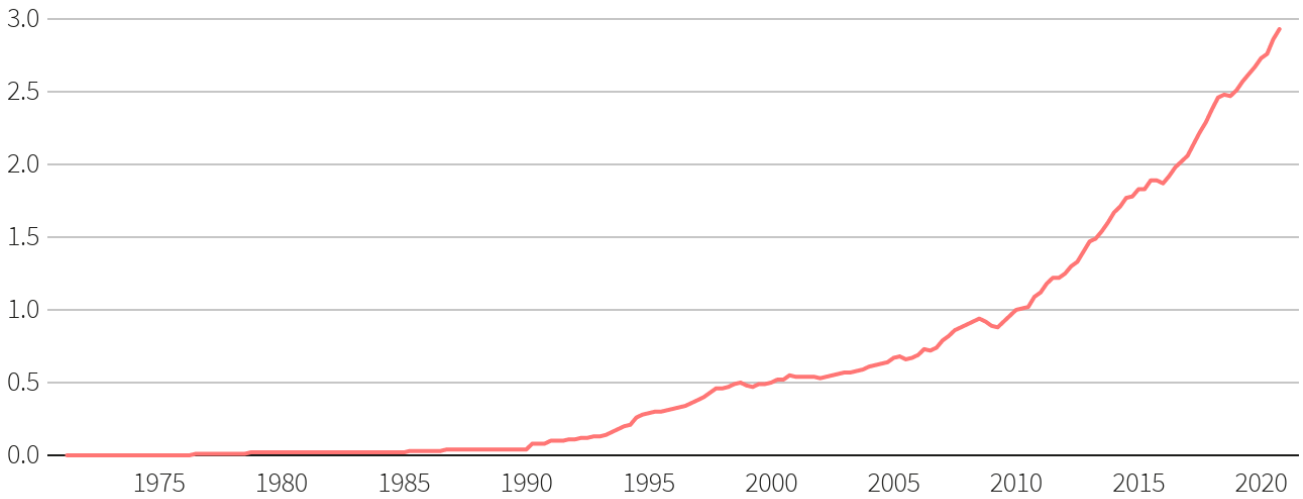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Emerging market debt set to hit \$3 trillion

Emerging markets bonds in \$ trill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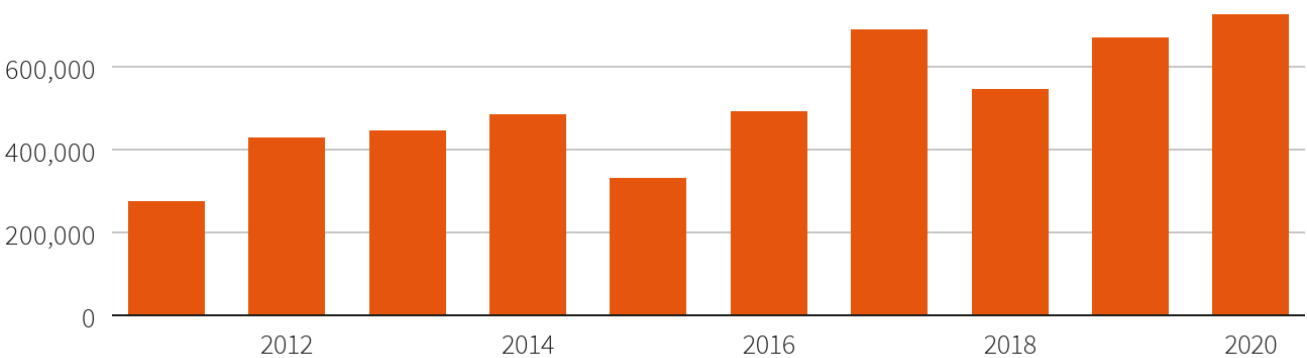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s
Source: BI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EM debt issuance surged to record levels in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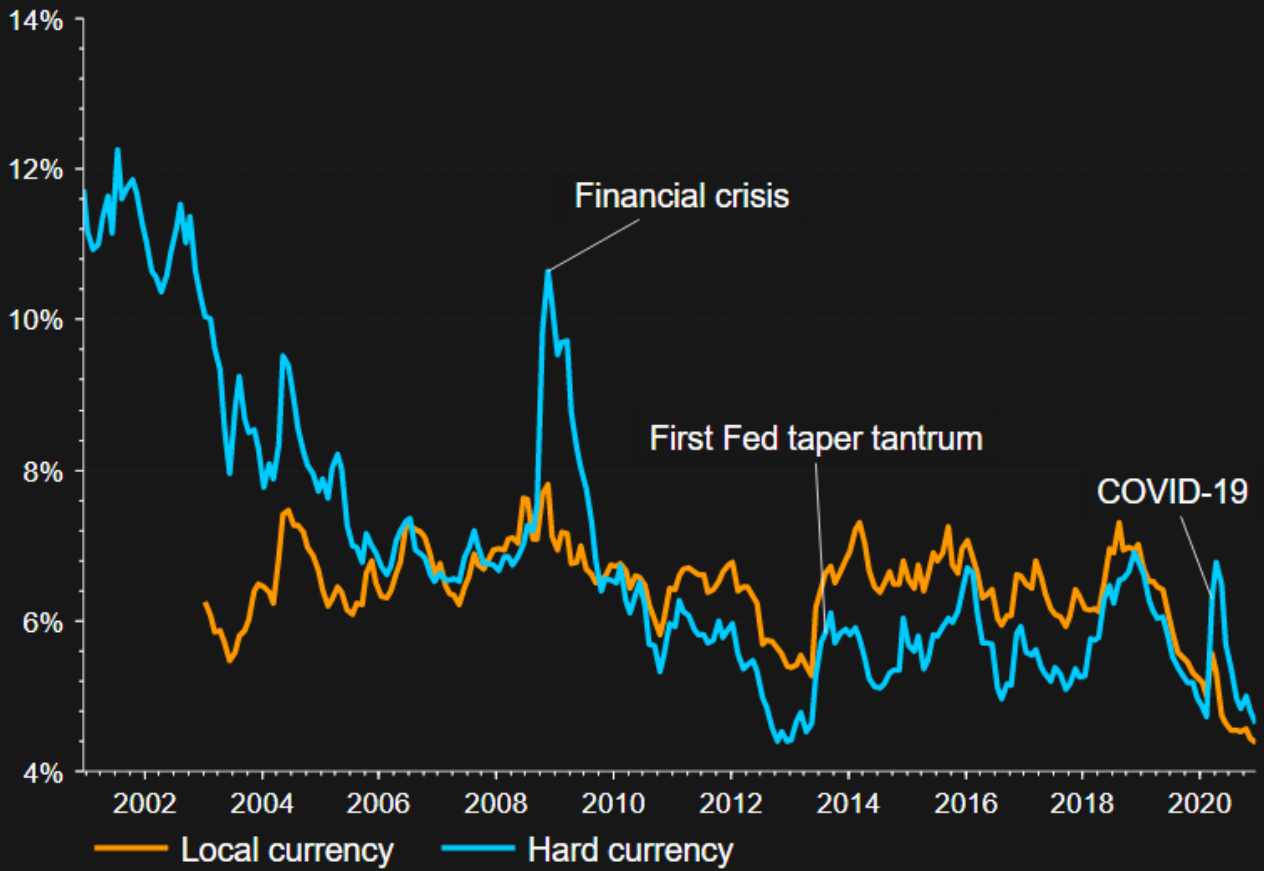
\$ bln



Tom Arnold
Source: Refinitiv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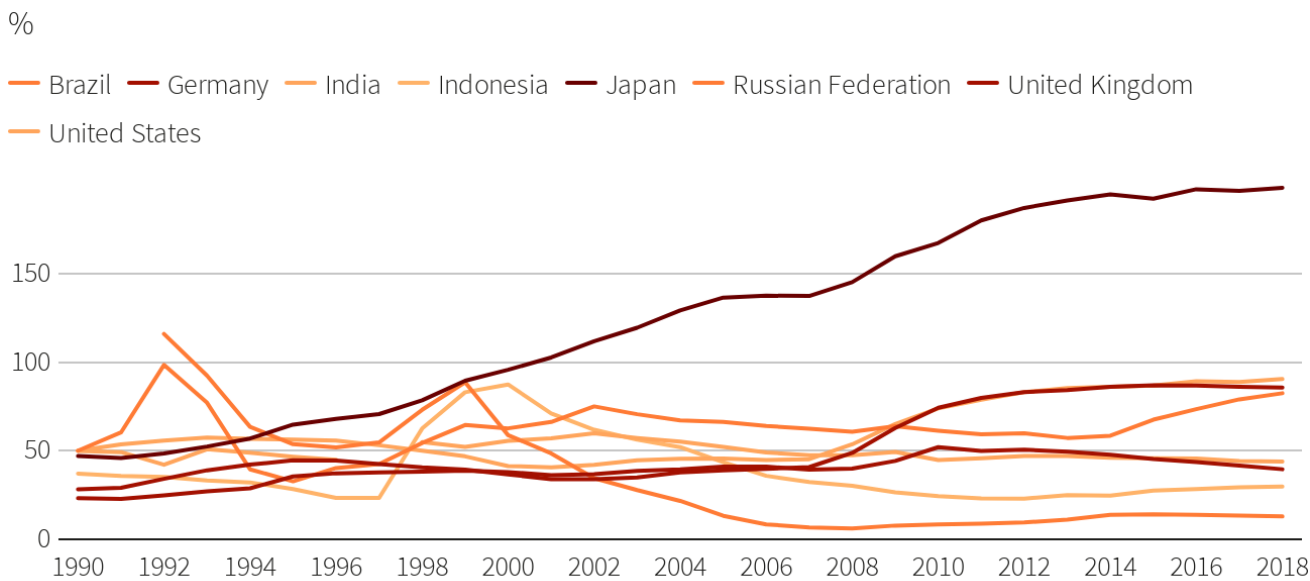
Emerging market sovereign bond yield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Marc Jones @marcjonesrtr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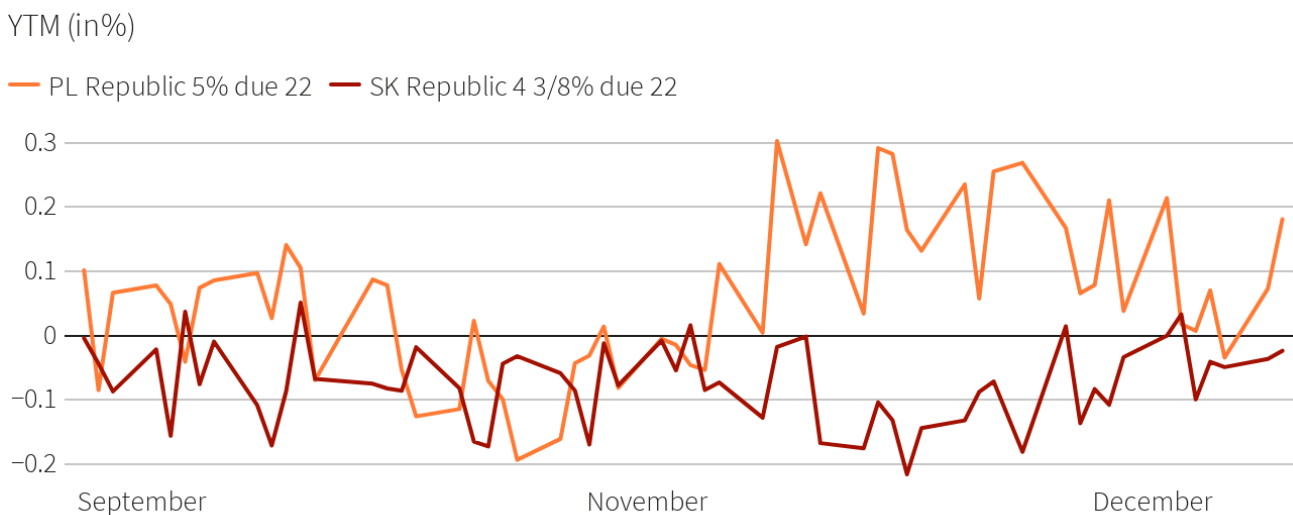
Central government debt to GDP of select EM vs DM



Tom Arnold
Source: IMF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Slovakia and Poland dollar bonds have flirted with negative yields



Tom Arnold
Source: JPMorga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